202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논술전형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계)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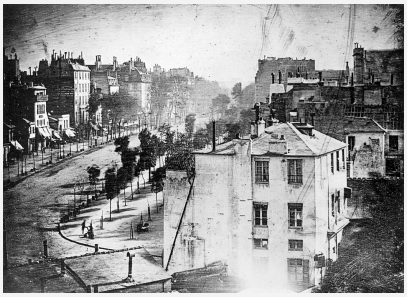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4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1,000점 만점).
   [문제 1] 분류·요약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비판·평가 (450자 내외, 320점)
   [문제 3] 적용·추론 (500자 내외, 400점)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 영역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답안 영역에 쓴 내용만 인정됩니다.
4. 정해진 작성 분량(띄어쓰기 포함)을 지키십시오. 답안에 제목은 쓰지 않습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 기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세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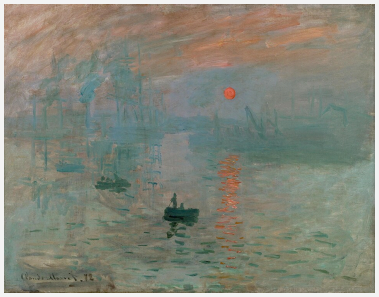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게르, 〈탕플 대로〉(1838)



모네, 〈인상, 해돋이〉(1872)

1839년 프랑스에서 다게레오타입 사진술이 공개되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일에서 회화는 더 이상 사진을 이기기 어렵게 되었다. 다게르가 찍은 〈탕플 대로〉는 파리 거리의 건물과 가로수를 붓으로는 흉내 내기 힘들 만큼 정밀하게 담아냈다. 초상화를 그려 생계를 잇던 화가들 가운데에는 일감을 잃는 이들도 생겨났다. 야외에서 직접 그리는 방식과 새로운 색채 연구가 퍼지던 이 무렵, 클로드 모네는 붓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사진이 담지 못하는 것, 곧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대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화가의 눈에 남은 순간의 인상에 주목했다. 1872년 작 〈인상, 해돋이〉는 항구의 배와 건물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짧고 거친 붓질로 아침 안개와 물 위에 번지는 햇빛을 그려 냈다. 1874년 전시회에서 한 비평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비꼬아 그들을 '인상주의자'라고 불렀지만, 조롱이 섞인 그 이름은 곧 새로운 회화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모네는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세계를 표현한다는 회화의 근본은 지키면서, 무엇을 그릴 것인가라는 물음에 새로운 답을 내놓은 것이다.

(나) 한때 세계 필름 시장을 주름잡던 미국의 코닥은 역설적이게도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만든 기업이다. 당시 코닥은 미국 필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필름을 팔고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이 회사를 떠받치고 있었다. 1975년 코닥의 한 엔지니어는 전자 센서로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경영진은 처음에는 이 기술이 회사의 주된 수익원인 필름과 인화지 판매를 갉아먹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키우지 않았다. 필름이 큰 이익을 내던 시절의 성공 방식이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은 것이다. 코닥은 1990년대부터 디지털카메라를 내놓았고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 디지털카메라 시장의 선두권에 서기도 했지만, 필름과 인화에서 나오던 높은 이익을 대신할 사업 구조로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코닥은 2012년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례는 기업이 과거의 성공에 집착해 환경 변화를 외면할 때 어떤 결과를 맞는지 보여 주는 예로 자주 거론된다.

(다) 초(楚)나라 사람들이 송(宋)나라를 기습하려고, 먼저 사람을 보내 옹수(瀰水)에 건널 자리를 표시해 두게 하였다. 그런데 옹수가 갑자기 불어났는데도 초나라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 표시를 따라 밤에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천여 명이나 되었다. 군사들은 놀라 큰 집이 무너지듯 무너졌다. 앞서 표시를 해 둘 때에는 그것을 따라 건널 수 있었으나, 이제 물이 변하여 크게 불어났는데도 초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그 표시만을 따라 건너려 하였으니, 이것이 그들이 패한 까닭이다. 지금 세상의 군주들이 선왕의 법을 본받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때는 이미 선왕의 법과 어긋났는데도 "이것이 선왕의 법이다." 하며 그것을 본받아 다스리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중략)

초나라 사람 가운데 강을 건너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칼이 배에서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급히 그 배에 표시를 새기며 말하였다.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배가 멈추자 그는 표시를 새긴 곳에서 물에 들어가 칼을 찾았다. 배는 이미 움직였지만 칼은 움직이지 않았으니, 칼을 이렇게 찾는다면 어찌 어리석지 않겠는가? 옛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와 같다. 때는 이미 바뀌었는데 법은 바뀌지 않으니, 이렇게 다스린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여씨춘추』「찰금」(포도논술 번역)

(라) 영국의 회색가지나방은 대개 밝은 회색 바탕에 검은 점이 흩어진 날개를 지녔다. 이 무늬는 지의류가 덮인 밝은 나무껍질 위에서 새의 눈을 피하는 보호색 구실을 한다. 그런데 19세기 산업 혁명 이후 공장 지대에서 석탄 연기의 그을음이 나무껍질을 검게 덮고 지의류가 사라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밝은 나방은 검어진 나무 위에서 쉽게 눈에 띄어 새에게 잡아먹혔고, 드물게 태어나던 검은 날개의 나방이 오히려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 그 결과 19세기 중반 맨체스터 부근에서 처음 기록된 검은 나방은 수십 년 만에 그 지역 나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대기 오염을 줄이는 법이 시행되어 나무껍질이 다시 밝아지자, 이번에는 밝은 나방의 비율이 다시 늘어났다. 새가 나무 위의 나방을 잡아먹는 정도를 비교한 야외 연구들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였고, 이 현상은 환경 변화가 생물 집단의 형질 비율을 바꾸는 자연 선택의 대표적 사례로 널리 소개되어 왔다. 개체 하나하나가 날개 색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나방 집단은 세대를 거치며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모습을 바꾸어 온 것이다.

(마) 조선 전기의 시조는 대체로 초장·중장·종장의 세 장으로 이루어지고, 각 장이 네 마디 안팎으로 짜인 정형시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상업이 발달하고 서민의 문화적 역량이 커지면서, 시조를 짓고 즐기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들이 담고자 한 삶의 모습은 양반 사대부의 절제된 정서와 달랐다. 장사꾼의 흥정, 시집살이의 설움, 남녀의 솔직한 사랑과 같은 일상의 이야기는 짧은 정형의 틀에 다 담기 어려웠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등장한 것이 사설시조이다. 사설시조는 초장이나 중장을 길게 늘여 이야기를 풍부하게 늘어놓고, 대화체나 열거, 해학적 표현을 자유롭게 끌어들였다. 가령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로 시작하는 사설시조는 게젓을 파는 장사꾼과 손님이 주고받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장사꾼이 어려운 한자말을 길게 늘어놓아 게를 설명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 시장의 생생한 말투를 시 속에 끌어들였다. 그러면서도 종장의 첫 마디를 대개 세 음절로 지키는 등 시조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였다. 사설시조는 시조라는 갈래의 근본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변화한 시대의 정서와 언어를 받아들여, 시조가 조선 후기에도 생명력을 이어 가게 하였다. 그 결과 시조는 양반의 노래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노래가 되었다.

[문제 1] (가) ~ (바)를 '유연한 대응'과 '경직된 대응'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바) 1793년 영국은 매카트니를 사절로 청에 보내 무역항을 늘리고 수도에 사절이 머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매카트니 일행은 망원경, 지구의, 시계 같은 영국의 최신 물품을 선물로 가져갔지만, 청 조정은 이를 먼 나라가 바친 진귀한 공물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건륭제는 영국 국왕에게 보낸 칙유에서 "천조(天朝)는 물산이 풍부하여 없는 것이 없으니, 본래 바깥 오랑캐의 물건에 기대어 있고 없음을 서로 통할 필요가 없다."라며 요청을 물리쳤다. 청은 이후에도 광저우 한 곳에서만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는 체제를 고수하였고, 서양에서 일어나던 산업과 군사 기술의 변화를 가볍게 여겼다.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청은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패하였고, 후대에는 이를 청이 바깥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사례로 평가하기도 한다.

(사) 제주 해녀는 산소 공급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닷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을 캐는 여성들이다. 물 위로 올라와 참았던 숨을 내쉬며 내는 휘파람 같은 소리는 '숨비소리'라 불린다. 해녀 공동체는 오랜 세월 거친 바다와 함께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해녀들은 '불턱'이라 불리는 돌담 쉼터에 모여 불을 쬐며 물질 기술과 바다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나이와 실력에 따라 일하는 바다를 나누어 서로를 보살펴 왔다. 고무로 만든 잠수복이 보급되자 해녀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차가운 물속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해산물을 지나치게 많이 캘 위험도 커졌다. 그러자 마을의 해녀들은 스스로 규칙을 정비하였다. 산소통 같은 장비의 사용을 금하고, 해산물이 자라는 시기에는 채취를 멈추는 기간을 두며, 함께 바다에 어린 조개를 뿌리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바다 수온이 오르며 해산물이 줄고, 해녀들이 나이가 들어 그 수가 크게 줄어드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해녀 학교가 문을 열어 새로운 해녀를

길러 내고, 해녀들의 물질과 공동체 문화를 방문객에게 소개하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도 숨을 참고 들어가 일하는 물질의 방식과 바다를 함께 가꾸는 공동체의 규약은 이어지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문제 2] 〈보기 1〉의 '변통'의 관점에서 (가)의 모네와 〈보기 2〉의 영국 의회를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1〉

조선 후기에 오래된 제도가 백성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자, 옛 제도를 그대로 지킬 것인가 고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주역』「계사전」의 다음 구절을 근거로 삼곤 하였다.

"역(易)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이들은 막힌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꾸어 통하게 하는 것을 '변통(變通)'이라 불렀다. 변화의 목적은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변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 1: 상황이 막혔을 때 기존의 방식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조건 2: 바꾸되 그 변화가 오래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보기 2〉

19세기 영국에서 증기로 움직이는 도로용 차량이 등장하자, 마차를 운영하던 사람들과 길을 걷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졌다. 그러자 영국 의회는 1865년 이른바 '붉은 깃발법'을 제정하였다. 법을 지지한 이들은 증기 차량이 말을 놀라게 하고 도로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 위의 기관차는 시골길에서 시속 4마일(약 6.4km), 시내에서 시속 2마일(약 3.2km)을 넘을 수 없었고, 차량 앞에는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며 위험을 알려야 했다. 사람이 걷는 속도에 기계를 묶어 둔 셈이다. 1880년대에 독일에서 내연 기관 자동차가 등장한 뒤에도 영국의 도로에서는 속도 제한과 차 앞에서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규정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 법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혼란을 막는 듯 보였지만, 새 교통수단을 옛 질서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규제는 30년이 지난 1896년에야 크게 완화되었는데, 그 사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프랑스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 3] 〈보기 3〉을 토대로 (사)의 사례가 회복력 있는 공동체(resilient community)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보기 3〉

Resilience, from the Latin resilire, "to spring back," refers to the capacity of a community to face a serious disturbance* without losing what makes it the community it is. It differs from mere survival or from simple resistance to change in several respects. First, resilience involves absorbing shocks: a resilient community accepts that the disturbance is real and endures its impact instead of denying it. Second, resilience involves reorganization. The community does not simply return to its old ways; it adjusts its rules, skills, and relationships to fit the new conditions. Third, resilience requires the preservation of identity. Unlike a community that changes so completely that nothing of its past remains, a resilient community keeps its core values and practices alive throughout the changes. Only when these three elements come together does a community show true resilience, one that carries its past into an uncertain future.

* disturbance: 교란, 혼란

〈끝〉